

바이오 기업에의 외국인 투자유치

과거에는 생소했던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시작하고 바이오 테마군을 형성하기까지 이르렀으나, 지금은 급격한 성장을 예상했던 바이오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 투자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글은 위축된 자본 조달 시장에서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과정, 장·단점과 유의 사항을 등을 정리한 것이다.

1. 외국인 직접 투자

IMF 구제금융 이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시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IT 벤처 붐을 타고 외국 금융기관들의 역외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형태로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미국 또는 유럽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아시아 지역 투자를 위해 홍콩 또는 싱가포르에 지점을 개설하여 한국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이후이며, 형태 또한 소수 지분 참여부터 인수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 산업의 경우, IT 벤처 붐 이후의 버블 붕괴 이후 육성이 본격적으로 되었고, 최근 들어 연구 개발 이후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져 성장기에 접어들고 있어, 대규모 외국 자본 투자 시기에 벗어나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바이오 산업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럼, 외국 투자 유치 과정(우측 표 참조)을 알아보도록 하자.

2. 외국인 투자 유치의 장점 vs. 단점

외국인 투자 유치의 경우, 국내 창투사와는 달리, 투자 회수 기간 (Investment Horizon)이 2~5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며, 비교적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회사를 심사하여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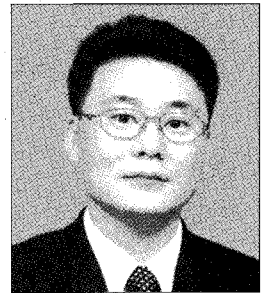
자한다. 따라서, 회사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며, 궁극적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를 증대하는 데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한다. 사외 이사의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해외 진출 등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자회사 설립 또는 회사를 인수해야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국 기관이 이미 투자한 포트폴리오와의 연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상장 또는 등록시, 외국인 투자기관의 지분 참여 자체가 투명성 제고에 또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주식 가치의 증대에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유치에의 단점을 들자면, 외국 투자 기관들은 통상 자본율에 비례하여 사외 이사직을 요구하며, 보다 엄격한 경영 관리를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 (Veto Rights)를 요구한다. 특정 사안의 예로는 타 사와의 합병, 인수 또는 추가 자금 조달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채 조달 등 경영 기획 사항부터 재무 사항까지 포괄적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경영 참여일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볼 경우, 경영 간섭이 될 수 있다. 추정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 또한 철저하여, 비현실적인 추정 수치에 대해서는 성과 보증 (Performance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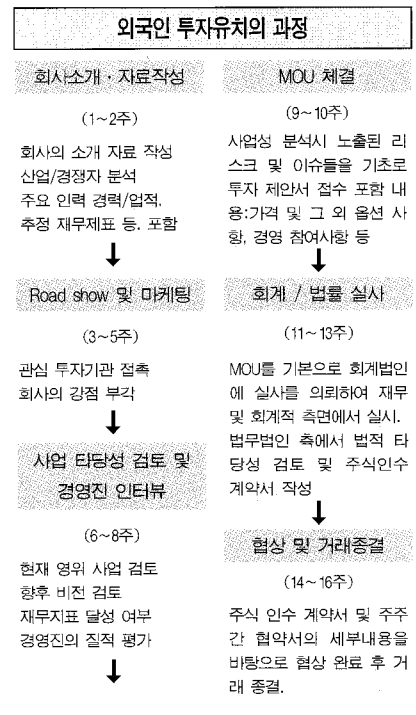
3. 결론

외국인 투자 유치는 실제 자금이 입금되는 날까지 통상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되는 긴가긴 작업이며, 성공 가능성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자칫 회사에서 실행을 꺼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 회사의 사업 모델 상, 해외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



삼일회계법인(공인회계사)

유상수 이사



고, R&D에의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여 50억 원 이상의 자본 조달 수요가 있고, 현재 회사의 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비전을 투자 기관에게 설득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경우, 투자 유치를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